

# 전주시, 아동안전지도 제작 추진

### 올해 전주문학초 등 11개 초등학교 대상... 등·하교시 위험환경·범죄우려 정보 등 표시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초등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표시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더욱 촉촉한 안전망을 갖추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전주서일초등학교와 전주문학초등학교 등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과 인솔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주변을 기준으로 학원과 집 등 아동의 이동 동선에 따라 주변의 위험환경과 범죄 우려지역 정보 등을 직접 지도에 표시·제작하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지역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는 10월까지 각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학교주변의 위험환경 요인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안전지도는 해당학교에 배포해 교육 및 범죄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학생과 교사 등 구성원들이 아동안전지도 제작과정에서 발견한 주변 위험환경 및 우범지역 자료 등은 민·관·경 협의를 통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11개 학교 관계자들과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교사 및 지역 주민들은 참정규 '지역아동을 사랑하



전주시는 올해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인솔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주변을 기준으로 아동의 이동 동선에 따라 주변의 위험환경과 범죄 우려지역 정보 등을 지도에 표시·제작하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는 사람들' 대표로부터 안전지도 제작 방향과 매뉴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전주시역 69개 초등학교 중 50개 학교 주변에 대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완료했다.

지난해 흥산초등학교를 비롯하여 13

개 학교에서 제작된 아동안전지도는 △안전통화로 설치, 노면에 돌출된 철근 제거 및 환경개선 24건 △통학로 주변 불법주정차단속 및 우범지역 순찰강화 7건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등 학교주변의 위험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돼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우수기관'으로 선정

돼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아동 안전지도는 아동대상 성범죄 예방효과 뿐 아니라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위험환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 친구 납치 돈 뜯은 40대... 8년 만에 쫓값

대낮에 친구를 납치해 흥기로 위협, 돈을 빼앗은 40대가 약 8년 만에 쫓값을 치르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공범은 지난 2009년 3월 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노상에서 친구 B(남자 35세)씨를 불러내 결박한 뒤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현금 3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B씨를 흥기로 쥘 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눈에 가리고 "3억원을 당장 이체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가족들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차에 태워 돌아다니는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 이들에게 4억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납치된 지 7시간 만에 풀려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가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아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공범은 곧바로 경찰에 검거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 뒤늦게 자수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워 1심 합의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 누범 기간에 또 본드 흡입한 4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모델에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최초(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익산시의 한 모텔에서 환각 물질이 든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연락을 받고 모델로 온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자친구는 객실 안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본드 흡입 전과 10범인 최씨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다시 본드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민 기자

## 완산구, 가로등 일제정비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가로등 일제정비 등 철저한 예방점검 및 재난시설의 신속한 정비로 재난발생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완산구에서는 장마철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갑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가로등 제어함 480개소에 대해 누전차단기 동작 여부, 접점기 동작 상태를 점검하고, 가로등 1만3,722등에 대해 등주 접지시설, 안전기 전선연결 상태 및 지중선로 절연상태 등의 안전점검을 지난 3월 26일부터 착수하였으며, 그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하여 오는 5월부터 일제 정비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중순까지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기간 이외에도 가로등의 모든 누전 요인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수 조치를 하는 등 항상 전기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반

## 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 구속 기소

### ID 614개·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18일 구속 만료돼 '2건' 혐의만

주요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드루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모(48·필명 드루킹)씨와 우모(32)씨, 양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우씨 등과 함께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2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경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파워블로거인 김씨는 드루킹(Druc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운영해 왔다. 그는 경기 파워 소세 경공모 사무실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정치 관련 인터넷 기

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등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포털 사이트 아이디(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중 '문제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뺐났다', '뺨흔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 2건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우선 경찰이 송치한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 포털 사이트 정보처리장치의 통계 집계 시스템을 잘

못 인식하게 함으로써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 등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에 보냈다. 주로 김씨가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김 의원은 메시지 대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 등 인사 요청을 집요하게 해왔고, 청와대 측에 추천 내용을 전달한 적은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인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반 위 협박적인 불만 제기가 이어져 김씨와 거리를 뒀다고 주장했다. /뉴스

## 전주시, 급수관 수도물 수질 모니터링

### 블록별 탁도·11개 항목

전주시가 급수관을 지나는 수도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질검사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권혁신)는 맑은물공급사업 1단계 사업을 통해 새롭게 구축된 급수관을 지나는 수도물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수도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맑은물공급사업 1단계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1,6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주시 급수구 전체를 10개 대블록, 33개 중블록, 128개 소블록으로 나눠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수도관의

노후가 심한 50개 블록에 대해서는 노후관 605km를 교체한 사업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각 블록별로 수도물의 탁도를 점검하고, 철 등 11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진행하는 등 급수관 내부의 오염물질 유입과 수질 변동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질검사를 통해 고산정수장에서 생산돼 전주시역 10개 배수지의 대블록에서 각 소블록으로 배분 분배되는 길목에서의 수질변동 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수질 감시에 특화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천마·인후배수지 구역 40개 소블록 대상 수질조사 결과, 탁도가 0.05~0.09NTU로 먹는물 수질기준(0.5NTU) 보다 월등히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기동취재반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